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

대치동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을까?

글_ 김준호 청소년 도서평론가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
김준호 지음 | 이지북 | 315쪽
값 12,700원

지난 11월 16일 2007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다. 12년 동안 쌓아 온 학습능력을 평가받는 이 시험을 통해 고 3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내 자신에게 퍼져앉아 닦쳐 올 수능의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서점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은 서점 한 켠의 청소년·학습법 코너로 가서 매대에 준비한 갖가지 학습법 책들을 보면서 ‘어떤 책을 고를까’ 또는 ‘어떤 책이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실용적일까’ 등의 고민을 하리라.

내가 만약 청소년이라면 어떤 학습법 책을 선택할까. 그런 설정을 하며 매대 앞에 서니,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학습법 책들은 명문대 합격 성공기-요즘에는 국내 명문대라도 안 되고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유학생들의 이야기쯤은 돼야 한다-들이다. ‘입시 신데렐라’인 그들의 학습 성공담은 비주얼한 얼굴 사진을 내세우는 표지와 중첩되면서 보통 청소년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이 책을 사, 나를 따라와 봐,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속삭이면서,

또 눈에 띄는 학습법 책의 경향을 살펴보자. 교사나 학원 강사가 저자인 것들이 이 장르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대개 ‘○○○ 학습법’이란 제목을 단 저서를 내놓는 이 유파(?)의 저자들은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나름대로 정립한 이론을 전개하며 자신이 개발했다는 학습법의 효용성을 강력하게 선전한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학습법은 별 효과가 없어, 내 책을 사, 내가 개발한 학습법만이 너를 우등생으로 만들 거야’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들 책의 공통점은 ‘1등주의’다. ‘학교에서도 1등, 명문대에 입학한 1등, 오직 1등이 절대선이고 내 책만이 너를 1등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의 학습법 코너 검색창에서 ‘서울대’를 치면 많이 검색되는 것은 학습법 책들이다. 서울대나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1등주의는 학습법 책들의 근본 사상이자 한국 사회가 어떤 욕망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알게 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장르에서는 1등주의만으로도 성이 안 찬 듯한 책들이 등장하

●이 글을 쓴 김준호는

현재 출판·저자 에이전시 ‘서울출판정보’의 대표, 10대 대상의 매체 기자, 《한국고교신문》 편집장을 역임했다. 청소년 도서의 저자 겸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한 책으로는 《이범의 공부에 반하다》(논술 공부 99%는 잘못됐다)(최고의 학습전략 플래닝) 등이 있고, 저술한 책으로는 《영어에 성공한 사람 17인이 털어놓는 영어학습법》(영강사 13인의 7차 수능 공략)가 있다.

기 시작하니, 가히 점입가경이다. 그 중 하나가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김은실 지음, 이하 《대치동 입시전략》)이다. 이 책을 독자들에게 권하려고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습법 책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여 주는 모델로 예를 들어 보려는 것이다.

《대치동 입시전략》은 대치동 엄마들의 현황과 입시전략, 그리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엄마들의 학습·입시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집필한 것일까?

저자가 쓴 머리말을 살펴보자. “대치동 엄마들과 아이들을 마치 선택 받은 특별계층으로 여기는 엄마들의 반응을 보고, 나는 대치동을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중 1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그들에게서 내 아이의 대입 플랜 지도를 대폭 수정케 하는 실속 있고 정확한 정보를 한아름 캐내었다.”

이로 볼 때, 저자가 취재한 내용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을 다룬 것이 분명하다.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꼼꼼한 취재 노력이 책 속에 녹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엄마들이 교육특구인 대치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음을 저자가 예리하게 파악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엄마들이 이 책을 집어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그런데 이 책에는 함정이 있다. ‘명문대에 성공한 자녀를 둔 성공한 엄마들의 입시전략’과 ‘대치동’의 연결고리가 헐겁기 때문에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함정의 실체다. 과연 대치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모두 명문대에 진학하고 공부를 잘하는가? 그렇다면 왜 대치동에 위치한 한 학습클리닉에 자녀들의 학습 부진을 이유로 많은 엄마들이 상담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일까. 또한 서울대 입학생의 분포만 봐도 대치동이 다른 동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앞설 수는 있지만 그나마 정확한 통계도 없다. 아주 월등하지도 않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점이 쉽게 보이는데도, 저자는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학습 부진에 빠져 있는 수많은 자녀와 그들의 엄마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대치동에 살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믿는 것일까. 책이 주장하는 것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니, 아무래도 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쉽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드물다. 자연히 교육열과 투자가 극심한 지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 유독 대치동을 택해 그 지역 안에서 ‘명문대에 자녀 보내기’에 성공한 엄마들의 사례만을 모아 《대치동 입시전략》이란 제목의 책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 책은 특정한 코드를 내세워 독자들의 시선을 손쉽게 잡아끈 반면, 대치동에 거주하는 보통, 학생들의 엄마들은 물론이고 이곳에 살지 않는 대다수 엄마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는 문제점도 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적어도 저자는 이 책 속의 사례들이 대치동 내에서도 일부란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 책의 영향을 받을 대다수 독자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만, 이런 일종의 ‘교육 지역주의’를 출판계가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명문대 입학생들의 이야기가 휴머니즘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업주의에 이용되느냐에 따라 책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제목에서부터 언급하고 내용면에서도 적극 내세우는 책들은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최소한의 질적 수준과 윤리적 경계선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책들의 아류가 버젓이 여러 권씩 나오는 요즘의 출판 환경으로 미루어 보면, ‘압구정 엄마들의 입시전략’이니 ‘청담동 사모님들이 밝히는 아이비리그에 자녀 집어넣기’ 같은 아류들이 쏟아질 수 있는 계기를 이 책이 제공한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된다. 이 책이 단점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교육서 장르에서 독자들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한계선이 지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합격 성공기든 학습법 책이든 입시 전략서든, 결국 교육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출판계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서마저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편법이나 특정한 지역·계층 우월주의 같은 것을 공공연히 받아들이도록 조장한다면, 그런 책은 출생에서부터 그 장르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모순을 갖기 마련이라는 것도. **한지민**